

 국토교통부	보도 설명자료		
	배포일시	2020. 12. 6(일) / 총1매(본문1)	
담당 부서	주택기금과	담당자	·과장 한성수, 사무관 좌명한·김미리 ·☎ (044) 201-3337, 3339
보도 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“임대 예산은 2.5배 늘고, 내집마련 예산은 20%삭감” 기사 관련

<보도내용('20.12.6, 매일경제)>

- ◆ 이번 정부들어 주택도시기금내 임대 예산은 2배이상 늘어난 반면, 내 집마련을 위한 예산은 20% 이상 삭감
- ◆ 공공임대를 늘리면서 무주택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은 소홀비판

- '21년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임대·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분야 지원 규모는 주거복지로드맵 등 중장기 공급계획 및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서민·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(20.11)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, 국회심의 과정에서 일부 증액된 바 있습니다.
- 구입·전세자금(디딤돌·버팀목) 지원 규모는 정부안대비 다소 감액되었으나, '20년 본예산대비 5천억원 이상 증액되었고, 금년 집행 추이 등을 감안 수요 충족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.
 - 이번 예산안 부대의견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추가적인 지원 소요가 발생할 경우,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관련 재원을 추가 편성(기금의 직접지원방식)할 수 있으며,
 - 기금 직접지원과 별도로, 주택금융공사 및 기금수탁은행 재원을 활용한 지원(기금의 이차보전 방식)도 운영 중으로, 내년도 무주택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추진 할 예정입니다.
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좌명한 사무관(☎ 044-201-333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